

착하지 않은 녀석들을 위한 동화

자끄 프레베르/박혜영 역
고려원 / A5 / 106면 / 2000원

『타조 : 네 엄마는 말이야, 이웃집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생각 말고, 너나 잘 돌보는 게 훨씬 나았을 거야. 네 엄마는 종종 네 따귀도 때리더구나. 엄지소년 : 우리 아버지도 가끔 날 때렸는 걸. 타조 : 아니! 엄지 씨가 너를 때리더구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때리지 않는데, 왜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때리는 거지? 게다가 엄지 씨는 자기도 별로 영리하지 못하면서 말이야』

아기개미 이야기

박 송 작
신원문화사 / A5신 / 192면 / 1800원

『아기개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이 맑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날이 아기개미는 좋았습니다. ... 「아기개미야! 그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들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뭇가지를 놓지 마라!」 그것은 제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개미가 냇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본 제비님이 나뭇가지를 물어다 떨어주었던 것입니다. ... 「왜 나는 제비님처럼 하늘을 날지 못할까!」』

우리의 뿌리 효

유세중 · 한상남 역음
민서출판사 / A5신 / 262면 / 2500원

『상을 받은 우탁은 그만 목이 메어서 수저를 들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 생각이 났던것입니다. ... 「생전 처음 이렇게 진귀한 밥상을 받으니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 생각에 목이 메어서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말없이 우탁을 바라보던 그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하인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겨자씨의 꿈

조성자 작
샘터 / A5 / 220면 / 2200원

『어머, 너는 무슨 씨앗인데 그렇게 작니?... 「젠, 병어리인가봐.」 시금치씨가 불쌍하다는 듯 말합니다. 겨자씨는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아무말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가슴속에 예쁜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리라는 꿈 말입니다』

도깨비섬의 동굴

임신행 작
문공사 / A5신 변형 / 266면 / 2000원

『도깨비섬은 한 바퀴 돌아보는 데 한 시간이 넘게 걸렸다. 진석이는 남쪽의 깎아 세운 듯한 암벽 앞에서 있었다. 암벽은 주황빛을 띠고 있었다. ... 「아니?」 진석이는 물너울이 왔다가 밀려나가는 순간, 암벽 밑으로 시커먼 괴물같은 것을 발견했다. 머리끝이 곤두섰다. 진석이는 물너울이 다시 밀려나가기를 기다렸다. 「아!」 진석이가 발견한 것은 검은 괴물이 아니라 큰 동굴이었다. 큰 물너울이 밀려와 암벽을 칠 때마다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는 까닭은, 바로 동굴에 공기가 들어갔다 빠져다 하면서 울리는 소리였다』



사슴의 선물

여원 그림동화 도란도란 2. 유아용
여원 / A4 변형 / 32면 / 전40권 140000원

『애야,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왔는데 혹시 못 봤니? 「사슴 말예요? 방금 저쪽 숲으로 달아났어요」 바우는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냥꾼은 바우가 가르쳐 준 길로 재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사냥꾼이 보이지 않게 되자 바우는 덤불 속에 있는 사슴을 불렀습니다. 「사슴아, 나와라. 사냥꾼은 저쪽으로 갔으니 마음을 놓아라!」』

재크와 콩나무

여원 그림동화 도란도란 18. 유아용
여원 / A4 변형 / 32면 / 전40권 140000원

『옛날 어느 시골에 「재크」라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자꾸 어려워지자, 하루는 어머니가 재크에게 소를 팔아 오게 했습니다. 재크가 소를 몰고 시장으로 갈때였습니다. 「애야, 그 소하고 이 콩하고 바꾸지 않으려?」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 콩 한 알을 재크에게 내보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해바라기 얼굴

권오삼 · 고희렬 편
창작사 / B6 / 246면 / 1500원

『풀을 벤다
머리채 잡듯 거머쥐고
풀을 벤다
낫질을 한다.
애야, 아무리 잡풀이지만
그렇게 잡으면 못 쓴다.
풀을 잡은 아버지 손을
가만히 보니
풀을 쓰다듬듯 감싸고 있다.
아버지 눈빛이
하늘색 풀꽃처럼 맑다』
(하청호 작 「풀베기」全文)

민들레 피리

윤일주 작
정음사 / A5 / 94면 / 2000원

윤동주 시인의 동생인 윤일주 시인이 「내 마음에 노래의 씨를 뿌려 놓고 영영 가신 언니를 기리며 쓴 유고 동시집. 『별 총총한 밤에 바다 꿈을 꾸며 자는 산골 아이. 바다는 파란 바다 끝이 없는데 돛단 배에 앉아서 가고 있었다. 별 총총한 밤에 산골 꿈을 꾸며 자는 바닷가 아이 산길은 꼬불꼬불 끝이 없는데 하얀 꽃을 따면서 가고』 (「꿈」全文)

바보 마을의 영웅

송미루 편역
창작사 / B6 / 236면 / 1500원

『옛날 어떤 마을에 씨움이라는 사람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무엇이든 반대로만 하려고 해 씨움은 늘 슬펐습니다. 「강물은 비린내가 나니까 샘물을 길어 오나라!」하고 씨움이 말하면 아들은 「아니예요. 샘물이 더 안 좋아요!」하며 강물을 길어 왔습니다. ... 불쌍한 씨움은 말 안듣는 아들 때문에 늘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에게도 피가 생겼습니다』

쟁이들만 사는 동네

박완서 작

샘터 / A5 / 203면 / 2200원

『아빠의 마음도 분주합니다. 아빠는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엄마와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빠가 된 윗사람과 친구들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았다가 웃음거리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이고, 남자들이 할 일은 아주 쉬운 일밖에 없대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직스러운 아빠가 되는 것이랍니다』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허 벽 역

예림당 / A5신 / 172면 / 2000원

『케네디 아저씨께,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백악관에 여자 대통령이 계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그럴려면 그분은 마흔 살 정도로 젊으셔야 할 테고, 선생님처럼 총명하셔야겠지요? 물론 얼굴도 예쁘고, 아는 것도 많아야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학교는 세 달만 다니고 방학은 아홉 달이 되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아저씨께서도 아저씨 아들 딸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아저씨의 진실한 에드나 드림』



내 귀는 소리껍질

김원석 편

예림당 / A5 신 / 94면 / 2000원

『머나먼 마을에 이르러 고향의 풍습을 따라서 맑은 봄철 축제날에 작은 새 놓아 주노라 비록 한 마리의 새지만 살아 있는 것에 자유를 주고 아쉬운 생각 없으니 내 마음 평화로와라』 (푸시킨 작, 「작은 새」全文)

춤추는 고양이

박상재 작

현암사 / A5신 / 192면 / 2300원

『요녀석 목심줄이 뽀뽀하고 뒷다리 근육이 탄탄한 걸 보니 쥐 잡기에는 아주 선수겠구나』 할아버지는 껄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자알처럼 크고 굵었습니다. ... 옹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고 어깨춤이 나올 듯 기뻐했습니다. 옹이의 마음은 벌써 훤내 물씬 풍기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벼 낱가리를 헤집고 다니며 신나게 쥐를 잡는 꿈도 꾸고 있었습니다』

**예림당은
이제 명실공히
아동도서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책임과 사명감으로
어린이를 위한 보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용그림책	창작동화
유년용그림동화	전래동화
유아용교육도서	교양문고
세계명작동화	위인전기



어린이도서전문출판

예림당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325-5호
☎ 249-3333 (대표)